

■ DJ '6월 방북'... 남북관계 돌파구 열까?

# 김 위원장과 6년만에 회동... 북핵해법 주목

북한이 제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수용함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에서 북측과 논의할 내용과 방북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파트너였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와의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6년만에 이뤄지는 두 사람 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비록 정부 대표나 특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전직 대통령이자 6.15 공동선언의 당사자로서 '위상'을 감안할 때, 이번 방북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

## DJ, 6자회담 조속복귀 설득할 듯 북한 예우차원 '선물' 기대감도

겠느냐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남북장관급 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측 단장인 권호용 내각 책임참사와의 수차례 접촉에서 남북 DJ 방북 문제를 심도있게 제기했다는 점도 정부 당국이 DJ 방북에 걸고 있는 기대감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정 특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출가분하게 가는 만큼 어떤 합의를 위한 성격의 자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0년 정치 역정과 대통령 재임 중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온 DJ로서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큰 틀에서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DJ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8순을 넘긴 DJ가 노구를 이끌고 방북하는 만큼 북측이 정상회담 파트너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뭔가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거론할게 확실시 된다. DJ는 지난달 21일 영남대 강연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가 방북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의사를 내비쳤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여수박람회 중앙유치위원장 김재철씨 내정

### 전남도 밝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의 국내·외 유치를 전담할 중앙유치위원회 위원장에 김재철(71·사진) 전 한국무역협회장(현 동원그룹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동원그룹 측은 김 전 회장의 위원장 내정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5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김재철 전 무역협회장을 2012년 여수박람회 중앙유치 위원장으로 초빙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박 지사와 반기문 외교부장관,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 김병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김재철씨를 유치위원장으로 초



빙키로 한 데 대해 "전 무역협회장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했던 전문가인 데다 김 전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동원그룹을 이끌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동원그룹 측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김재철 회장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중앙유치위원장 직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韓 대표 "이유 막론하고 깊이 반성" 민주당 한걸음 뒤로

### '길거리 당사' 이전 계획

조재환 사무총장의 4억원 수수 사건에 대해 '특별당비'라는 주장과 함께 음모론을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중앙당의 사건 대처 방식에 불만을 보여왔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데다 특별당비 및 음모론에 대한 여론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화갑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원들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마음으로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의 어려운 살림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당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당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 4대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로부터 특별당비는 단 1원도 받지 않겠다"며 "다만 재정난 타개를 위해 당원들의 자발적 당비 모금 운동에는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한 "이번 특별당비 파동은 원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빛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됐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에 진 빚을 갚아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다음달 중앙선관위에 서나를 국고보조금 19억원이 차압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중앙당 당사 보증금 5억원까지 차압되면 거리로 나와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당사를 비위주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선거를 치러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체제를 장 상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선거대책 본부장에 김효석 정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당사 보증금 5억원까지 차압되면 국회 주변에 소규모의 천막을 설치, 중앙당사로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막당사라는 이름은 한나라당이 이용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 '길거리 당사'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도 다음달 세비와 월급을 모두 당비로 납부할 계획이다.

한편 조재환 사무총장 사건과 관련 한화갑 대표가 강경 대응 자세에서 대국민 사과라는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여론의 악화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5일 오전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표실에서 조재환사무총장의 4억원 수수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재산형성 소명' 공직자윤리법 행자소위 통과

국회 행정자치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위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토록하고 재산등록일 전 3년치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는 김한길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비교할 때 재산소명

대상(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늘어난 대신 소명자료 제출 범위(재산등록일 전 5년치)는 좁아진 것이다.

법안은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소명자료 제출 범위를 줄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의 동지로

### 박준영 지사, 서울시장 출마 박주선 前의원 지원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의 동지로 다시 만났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25일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 후보에서 전직 유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주선 전 의원을 찾아 선전을 기원했다.

박준영 지사는 이날 오전 박주선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 "농민의 아들인 박주선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장에 당선돼 민주당과 호남의 자부심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전남지사 후보로 활동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서울에 있는 전인직들에게 전화를 통해 박주선 후보 지지를 부탁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박주선 후보도 "서울 박주선, 광주 박광대, 전남 박준영의 '3박'이 힘을 모아 지방선거에서 승리, 민주당을 살리는 '3박자'가 되자"며 "당내외의 악재로 여러

운 상황이나 사측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지사와 박주선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로 맞섰을 때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경쟁 관계를 유지한 바 있다.

한편 박주선 후보는 고건 전 총리와 조만간 회동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박주선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고건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써 서울시장에 역임한데다 실용주의와 중도개혁세력에 바탕을 둔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주장한 바 있다"며 "조만간 박주선 후보와 고건 전 총리와 회동을 추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오늘부터 시·도지사 직무대행체제로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26일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부터 광주시는 행정부시장, 전남도는 정부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각각 바뀌게 됐다.

양 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양 단체장은 직무정지가 해제되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 시·도청 업무에 관여하거나

결재를 할 수 없다. 또 집무실은 물론 관용차 등도 사용할 수 없으며, 비서 등의 인력을 제 공받을 수 없게 된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의 광주시청 행정처리는 1순위 직무대행자인 정남준 행정부시장에 맡겨지며, 도청 행정처리는 송광문 전 행정부지사의 선거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됨에 따라 2순위 직무대행자인 이근경 정부부지사 맡게 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세계최초 공기과학 방+난방기

공기를 에너지로  
유지비율 1/3로  
유해가스를 0%로

사용요금을 일반난방보다 저렴해!  
2001년 출시하는 시점부터 100%의  
효율과 100%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최고급 공기과학 방+난방기

3

● 공기과학 방+난방기  
● 공기과학 방+난방기  
● 공기과학 방+난방기

02-231-0031

###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세정업체

엘케이그린(주)

수도배관은 청소와 관리가 필수!  
물과 보일러가 잘 작동하고 안심하십시오!

수도배관 세정 서비스  
수도배관은 청소와 관리가 필수!  
물과 보일러가 잘 작동하고 안심하십시오!

수도배관 세정 서비스  
수도배관은 청소와 관리가 필수!  
물과 보일러가 잘 작동하고 안심하십시오!

02-231-0799